

『더블린 사람들』에서 보이는 함정과 폐소공포증*

민 태 운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가 건강, 의학, 그리고 인간의 몸에 대한 담론에 매료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Plock 5). 그는 세 번이나 의학 공부를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코넬 대학에 남아있는 원고를 보면 조이스가 의학 전공을 준비하기 위하여 의학 용어와 텍스트를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Walzl 158). 비록 그가 의사가 되려고 했던 것이 그에게 좀 더 중요한 문학을 하기 위한 수단이기는 하였지만, 그는 의학의 어떤 측면에는 깊이 끌려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받아들인 임상적 태도는 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진단에 매료되었고, 질병과 불운이 개인에게 미치는 육체적, 심리적 영향에 대한 예리한 병리학적 안목을 계발(啓發)하였다(Walzl 159). 그는 자주 사회적 현상을 진단하고 그것을 의학적 용어로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동생 스타니스로스(Stanislaus)에게 더블린이 의지의 “반신불수”(hemiplegia)를 앓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Ellmann 140).

이와 유사하게,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집필과 관련하여 영국출판업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더블린을 “마비의 중심지”(Letters II 134)라고 말함으로써 작

* 이 논문은 2012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품이 더블린 사회의 병리학적 현상에 대해 다룰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작가가 주제에 대해 직접 언급함으로써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이 작품을 “마비”와 관련하여 연구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작품을 세밀하게 읽다보면 마비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약간은 다른 병리적 현상들도 눈에 띄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아마 함정에 빠진 후 탈출의 불가능성을 파악한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폐소공포증(claustrophobia)일 것이다. 둘을 엄밀히 구분해 보자면, 마비는 기능장애이지만 폐소공포증은 불안신경증(anxiety disorder)으로 공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불안, 호흡곤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폐소공포증의 증상 중에 마비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두 병리현상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폐소공포증은 마비의 증상이 그렇듯이 덧에 걸리는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도 더블린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우선 비좁고 답답하며, 먼지투성이의, 통풍이 안 되는 물리적 공간이 주로 폐소공포증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컨대 먼지가 끊임없이 쌓이고 있는 「에블린」(“Eveline”)의 주인공이 사는 공간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체(stagnation)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마비현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더 확장시켜 보면, 「애러비」(“Araby”)의 시작배경이 되는 “막다른 골목”처럼 출구가 차단되어 있는 구조도 밀폐된 공간의 느낌을 준다. 여기서 “막다른(blind)”(D 29)이라는 단어는 두 번이나 연속 사용됨으로써,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는 이들이 대표하는 더블린 사람들이 더블린에 갇혀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물리적인 건축물이나 지형만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더블린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주의, 가톨릭교, 가부장제도의 억압도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여 폐소공포증적 환경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작품에서 더블린 사람들이 어떻게 함정에 빠지는지, 이러한 의학적 현상이 인물들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어떻게 형상화되어 나타나는지, 또한 이것이 더블린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함정-폐소공포증의 공식이 가장 분명하게 제시된 작품은 「하숙집」(“The Boarding House”)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편감으로 적당한 총각을 결혼의 함정에 몰아넣을 작정으로 폴리(Polly)는 “희생양”(Henke 27)을 찾게 되고 좋은 직장에 저축까지 해둔 도런(Bob Doran)을 선택한다. 이 둘은 “덧을 놓는 사람과 덧에

빠진 사람”(Watzl 176)의 관계가 된다. 하숙집을 운영하는 어머니 무니 부인(Mrs Mooney)은 폴리가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숙집의 많은 청년들과 어울리게 한다. 사냥감을 함정에 끌어들이기 위해 폴리의 몸을 미끼처럼 청년들의 손이 닿는 곳에 내놓은 것이다. 무니 부인은 폴리가 한 청년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하며 지켜본다. “모녀 사이에 대놓고 한 공모”는 없었지만 딸은 어머니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D 63). 사냥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공격의 기회를 노리는 사냥꾼처럼 그녀는 “적기라고 판단했을 때,” 즉 먹잇감이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갔다고 생각했을 때 공격을 감행한다. 그녀는 자신이 “반드시 이길 것”으로 확신하는 시점을 선택한 것이다(D 64).

우선 세상의 여론은 그녀의 편이었다. 그녀는 피해 입은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신뢰할만한 사람인 줄 알고 집안으로 불러들여 살게 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은 꼴이었다. 나이도 34세, 35세 쯤 되었으니 어려서 그랬다는 핑계를 댈 수도 없을 터였다. 세상경험도 많은 사람이니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을 할 수도 없을 것이었다. 그가 단순히 어리고 세상물정 모르는 폴리를 이용했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었다. 남은 문제는 그가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뿐이었다. (D 64)

무니 부인은 도련을 소환할 때 그녀가 확실하게 사냥감을 덫에 걸리게 했다는 확신을 한다. 도련의 편에서는 덫에 걸렸음을 알아차리고 초조하게 탈출구를 찾으려 애쓰지만 헛된 몸부림일 뿐이다. 그는 제국주의와 함께 더블린을 지배하는 양대 세력중 하나인 가톨릭교회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신부를 찾아가 고해를 해보기도 하지만 위로를 받기는커녕 죄의식만 확대되어 느끼게 될 뿐이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는 다니고 있는 가톨릭 포도주 판매회사로부터 해고될 것이 두렵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상당 부분 성당의 신부들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회사에서 일할 수 없었다. 교회가 도련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데에 어느 정도 공헌했음을 알 수 있다. 폴리가 그에게 와서 울면서 했던 절망적인 말, “어떡하죠?”가 이제 자신에게 적용된다(D 67). 『에블린』의 끝부분에서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주인공이 “속수무책의 동물”(helpless animal)로 그려지듯이 도련은 함정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속수무책의”(helpless) 동물로 느낀다(D 67).

호머(Homer)의 『오딧세이』(Odyssey)를 이 작품의 뼈대로 보는 비평가들이 있

다는 것은 흥미롭다. 폴리는 아프로디테(Aphrodite), 도련은 아레스(Ares)이며, 무니 부인은 헤파이스토스(Hephaestus)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Halper 79).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전쟁의 신 아레스와 사랑을 하게 된다. 아레스는 아프로디테와 함께 그녀의 남편인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를 피해 자주 밀회를 즐긴다. 이를 지켜본 태양신 아폴론이 헤파이스토스에게 이 사실을 밀고하자, 헤파이스토스는 청동을 가늘게 늘여서 짠 그물의 덫을 만들어 아프로디테의 침대에 설치한다. 이것을 모르고 아레스와 밀회를 즐기던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스토스를 보자 아레스와 함께 자리를 피하려 하지만 이미 덫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여러 신들에게 망신을 당한다. 아레스가 보상을 약속하자 두 사람은 덫으로부터 풀려난다. 마찬가지로 무니 부인도 함정을 파놓는다. 그것도 침대, 즉 성과 관련된 덫을 놓는다(Halper 80). 그리고 도련은 결혼이라는 보상을 약속하기 전에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무니 부인이 최종적인 답판을 하기 위해 도련과의 면담을 요청하자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혼의 덫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싶지만 길이 막혀있는 것을 알기에 폐소공포증적인 초조함과 두려움을 보인다.

그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시야가 흐려 안경을 벗고 닦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지붕을 뚫고 올라가 다른 나라로 비상하여 이 골치 아픈 일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계단 아래로 내려오게 밀어내는 힘이 있었다. (D 67-68)

그의 시야가 흐리다는 것은 극도로 불안한 그의 심리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의 시작부분에서 주인공 스티븐(Stephen)이 개신교 신자인 이일린(Eileen)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분노한 댄티(Dante)가 사과하지 않으면 독수리가 와서 눈을 쪼아 먹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기시킨다. 밖으로의 탈출이 불가능한 스티븐은 이 때 탁자 밑으로 숨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도련은 성과 관련된 일로 무서운 어머니 상으로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날 거라는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두 장면에서 위협적인 어머니상의 목소리는 성에 대해 억압적인 가톨릭 회의 이데올로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도련의 극심한 불안감은 그 날 아침 그가 면도를 하려고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손이 떨려서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데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계단을 한 발 한 발 떴면서 내려오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가기 싫고 두려운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가 그 순간에 원하는 유일한 것은 “지붕을 뚫고 올라가 다른 나라로 비상하여 이 골치 아픈 일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는 이미 사망이 막힌 덧에 걸려 있는 것이다.

「경주가 끝난 뒤」(“After the Race”)는 지미 도일(Jimmy Doyle)이 함정에 빠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미는 자동차 경주가 끝난 뒤 유럽대륙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람들에게 그들의 친구처럼 보이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프랑스인 세구엥(Ségouin)은 “나무랄데 없는 부자의 품모”(D 45)를 풍겼지만 그가 어느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하지만 세구엥은 지미로 하여금 그의 자동차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데 성공한다. 그는 “얼마 되지 않는 아일랜드 돈을 회사의 자본금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순전히 우정 때문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애썼다”(D 44-45). 그가 지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대목이다. 마고 노리스(Margot Norris)는 지미가 “감언이설로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19). 지미가 이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법률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피하기 위해 카드게임을 통해 술 취한 상태에서 그의 돈을 빼앗고자 한 것인지(Norris 19), 아니면 투자와 별개로 그의 돈을 취하려고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상황은 돈 많은 여자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해 결혼을 빙자한 사기를 범하는 18, 19세기의 흔해빠진 플롯에 비유될 수도 있다(Norris 19-20). 여기서 지미는 남성(들)의 계약에 빠진 여성의 자리에 서게 된다. 아일랜드가 대영제국에 대해서 그렇듯이 지미는 유럽대륙인들에 의해서 여성화되고 상징적으로 거세된다(Henke 24).

미국인 팔리(Farley)와의 만남은 표면적으로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구엥 무리가 사전에 연출해 놓았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Norris 24). 왜냐하면 이 만남은 지미를 함정으로 빠뜨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팔리의 요트에 가서 술을 마시고 카드놀이를 하게 된다. 요트는 외진 호젓한 곳으로 지미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한다(Norris 24). 그들은 지미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한 후 그들의 최종목표였다고 할 수 있는 카드게임에 참여시킨다. 하지만 그는 “그의 카드를 잘못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차용증서를 대신 계산해 주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D 48) 너무 취해 있다. 『하숙집』에서 도련이 원하지 않는 결

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뒷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에서 빠져 나올 수 없었듯이, 지미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게임을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련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자신이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과 대면하지 않기 위해 그러한 인식의 순간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만 했으면 싶었지만”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는 계속해야 했고 그는 “돈을 가장 많이 잃은 둘 중의 하나”가 된다(D 48).

『에블린』의 여주인공은 “지루하고 고된 삶의 뒷”에 이미 빠져 있다(Walzl 176). 그녀는 “도대체 이 모든 먼지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D 37) 자문하며 희랍신화의 시지프스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해서 집안의 먼지를 털어내는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토요일 밤에는 술 취한 아버지와 “변함없는 말다툼”이 있고 어렵사리 타낸 돈으로 서둘러서 시장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D 38).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를 기세를 보이고 에블린은 두 남동생들을 돌보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힘든 삶”이다(D 38). 직장에서도 그녀에게 빈정대기를 잘 하는 사장이 꾸물거린다고 그녀를 나무라곤 한다. 집안에 썩어 썩어 쌓이는 먼지가 상징하듯 에블린의 삶의 공간은 숨 막히게 하는 곳이다. 그녀가 이 먼지 많은 곳에서 벗어나 “좋은 공기”를 뜻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도망가지 못하면 그녀도 어머니와 같이 “마침내 광기로 마감하는 혼해빠진 희생의 삶”(D 40)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동안 창가에 앉아있던 그녀는 단호하게 일어선다. 사실상 집안 일 등을 하며 어머니의 역할을 이어받아 하고 있는 그녀가 어머니처럼 정신병으로 삶을 마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가부장제의 희생자인 어머니는 평생 가정에 갇혀 살았고, 그것은 영국제국의 가부장에 의해 다락방에 갇힌 『제인 에어』(Jane Eyre)의 광녀 버싸(Bertha)를 상기시킨다. 에블린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단순히 먼지로 시사되는 통풍이 나쁜 공간만이 아니라 제국주의, 가부장제도, 가톨릭교 등의 억압적인 이데올로기임도 알 수 있다. 에블린이 프랭크(Frank)를 따라가기 위해 부두까지 나가지만 결국 배를 타지 못했을 때 그녀는 창살에 갇힌 동물의 이미지로 묘사된다. 이 때 그녀가 느끼는 “구역질”(D 41)은 폐소공포증의 증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두 손은 미친 듯이 쇠 난간을 움켜쥐었다. 바다 한 가운데를 행해 그녀는 고뇌에 찬 비명을 질렀다.

“에블린! 이비!”

그는 울짙 너머로 달려가며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외쳤다. 빨리 승선하라는 성화를 듣고도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수동적으로 속수무책의 동물처럼 창백한 얼굴을 그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를 향한 그녀의 시선에는 사랑이나 작별 혹은 사람을 알아본다는 느낌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D 41)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은 그 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에블린의 관점에서 그녀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반해 마지막 문장에서 그녀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객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문장은 누구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일까? 끝까지 그녀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그녀로부터 최소한 “사랑이나 작별 혹은 사람을 알아본다는 느낌”을 기대했을 프랭크의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이 부두장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에블린의 의식 속에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Brandabur 60), 마지막 문장에서도 에블린의 의식은 이어져 에블린이 간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쇠창살을 움켜잡고 있는 창백한 동물은 그녀의 의식을 통해 보이는,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동물, 즉 폐소공포증을 드러내고 있는 그녀 자신이 아닐까? 어머니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공포감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포는 어머니가 겪었고 에블린이 이어받을 “광기”를 예고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에블린이 프랭크를 따라서 아르헨티나로 간다고 해서 모든 함정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다. 『우연한 만남』(“An Encounter”)에서 주인공 소년이 로마 역사를 공부할 것을 강요하는 위협적인 버틀러 신부(Father Butler)의 억압적인 교실을 벗어나기 위해 “거친 서부”(wild west)같은 들판으로 도망가지만 거기에서 그에 못지않게 위협적인 이상한 노인을 만나듯이, 에블린이 더블린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꿈꾸는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더블린 못지않은 함정이 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했듯이 선원출신으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프랭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도시는 그 당시 “백인 노예무역의 국제 수도”(Mullin 189)로 악명이 높았다. 다시 말해서, 『경주가 끝난 뒤』에서 세구앵이 지미를 감언이설로 유혹하여 함정에 빠뜨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프랭크가 에블린을 창녀로 팔아넘길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혹은 리처드 브라운(Richard Brown)의 의견대로 프랭크와의 결혼이 에블린을 『하숙집』에서와 같은 또 다른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될지 모른다(13). 에블린은 현재 빠져 있는 함정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위험을 무릅쓰는 것 중 택일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는데 이야기의 끝 부분에서 그녀는 새로운 선택을 하지 못한다.

『작은 구름』(“A Little Cloud”)의 챈들러(Little Chandler)도 이미 뒷에 걸려 있고 그곳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 그가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다는 것은 런던에서 기자로 성공한 갤러허(Gallaher)와의 대조에서 두드러진다. “여행을 많이 한 것 같은 분위기”(D 70)를 풍기는 갤러허와 달리 챈들러는 더블린에서 뱃길로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는 맨 섬(The Isle of Man)보다 멀리 가 본 적이 없다. 갤러허는 “유쾌함, 움직임, 흥분”이 있는 빠리에 가보아야 한다면 그 도시의 “물랭루즈”와 “보헤미안 카페”에 가보았음을 자랑한다(D 76). 이 환상적인 도시는 챈들러에게 마술적인 “애러비”로 기능한다(Leonard 153). 이는 『에블린』에서 프랭크가 에블린을 『보헤미안 소녀』라는 오페라에 데려감으로써 자유의 공간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것을 상기시킨다. 갤러허가 이러한 “비도덕적인” 곳에서(D 77) 자유롭게 즐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챈들러는 가톨릭교회가 성을 억압하는 “답답한(dull)”(D 78) 곳에서 갤러허의 표현을 빌자면 “한 여자에게 묶여 있는” “진부한” 삶(D 82)을 살고 있다. 사진 속의 아내의 시선은 “그에게 혐오감을 주었고 그를 거부하였다”(D 83). “정열도 환희도 보이지 않는”(D 83) 그 시선은 그의 결혼생활의 실체를 요약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하숙집』의 도련이 지붕을 뚫고 올라가 다른 나라로 도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답답한 삶의 환경에 염증을 느끼며 “그의 작은 집에서 도망갈 수 없을가?”하고 생각한다(D 83).

챈들러는 좁은 면적에 갇혀 있는 그 자신의 삶과는 정반대로 방랑의 삶을 살다 간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Byron)처럼 되기를 갈망하기라도 하듯이 그의 시를

읽는다. 그 때 아기가 깨어나 울기시작하고 달래려 애를 쓰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커지지만 한다. 그는 숨 막히는 환경에 저항이라도 하듯 계속해서 바이런의 시 2연을 읽는다. 그 연은 “좁은 관” 안에 누워있는 죽은 여인에 관한 내용으로, 신선한 공기가 없는 비좁은 더블린의 작은 집에서 열정 없이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채들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듯이 보인다. 『율리시스』(Ulysses)에서 블룸(Bloom)은 “영국인의 집은 그의 성(城)이다”는 격언을 바꾸어 “아일랜드인의 집은 그의 관이다”(U 6.821-22)는 생각을 하는데, 채들러는 관 속에서 죽음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소용없었다. 읽을 수 없었다. 도대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아기의 울부짖는 소리는 귀의 고막을 찢어놓을 지경이었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소용없었다! 그는 종신형의 죄수였다. 그의 팔은 분노로 떨렸고 그는 갑자기 아기의 얼굴 가까이로 몸을 숙여 소리를 질렀다.

“뚝!” (D 84)

답답한 좁은 공간, 억압적인 환경, 시의 세계로의 임시적인 도피의 실패 등이 그를 답답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충동적으로 소리를 지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려든 것을 감지한 도런처럼, 그는 자신이 풀려날 수 없는 감옥에 투옥된 “종신형의 죄수”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힌다. 그가 고향을 치고 있는 대상은 아기라기 보다는 그를 숨 막히게 옥죄고 있는 더블린의 현재 상황일 것이다.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는 『대응』(“Counterparts”)에서도 등장한다. 영국에서 성공하고 영국사람 행세를 하는, 혹은 아버지가 세상물정 모르는 아들 대하듯 하는 갤러허(Gallagher)에게 채들러가 주눅이 든 후 집에 돌아와서 아들 앞에서나마 큰 소리를 쳐보듯이, 패링튼(Farrington)도 영국계 사장인 알레인(Alleyn)씨에게 심하게 혼나고 술집에서는 어린 영국인에게 두 번이나 팔씨름에 진 후 집에 와서 아들에게 고향을 친다. 영국의 가치관을 내재화한 갤러허와 북아일랜드에서 온 알레인씨 모두 영국의 배경을 등에 업고 있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 모두에서 식민 상황이 식민지인의 심리에 압박감을 가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패링튼의 분풀이는 난롯불을 꺼지게 했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 아들에게 향한다. 그는 어린 아들을 혼내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인다.

어린 소년은 “아, 아빠!”라고 소리지르며 테이블 주위를 훌쩍훌쩍 울면서 도망다녔지만, 남자는 그를 쫓아가 그의 겹옷을 붙잡았다. 어린 소년은 정신없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알고 무릎을 꿇었다. (D 98)

『하숙집』의 도련이 무니 무인과의 면담을 앞두고 하늘로 솟는 것 외에는 도망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느꼈듯이, 아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알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무릎을 꿇는다. 『에블린』의 여주인공이 작품 끝에서 “속수무책의 동물”이 되고 도련도 마찬가지로 “속수무책의” 진퇴양난에 빠지듯이, 아들 역시 사방이 봉쇄된 상황에서 “정신없이” 주위를 둘러보며 공포를 느끼지만 이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며 마비의 상태에 들어간다. 사장과 패링턴이 가해자와 희생자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관계가 된다. 패링턴은 그의 사장이 자신에게 그렇게 했듯이 생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처사에도 달리 호소할 길이 없는 존재를 선택하여 “주인의 잔인성을 모방한 노예들”처럼 아들을 때린다(Leonard 182). 이 장면에서는 그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서 있지만 회사에서는 그도 아들과 같은 희생자이었다.

회사에서 그는 법률서류를 복사하는 필경사로 헨케(Henke)의 말대로 소위 “인간 복사기”(15)이자 기계의 부속에 불과한 위치에 있다. 그는 “키가 크고 큰 체구”(D 86)로 남성적이고 폭력적이기까지 하지만 대머리의 “작은 남자”(little man)인 사장 알레인씨 앞에서는 무력한, 여성화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알레인씨가 그의 고용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문화적 권력구조의 위계질서”에서 패링턴보다 최소한 한 단계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Ingersoll 100). 알레인씨는 그의 “북아일랜드 억양”이 가리키듯이 당시 아일랜드에서 권세를 지니고 있던 영국계 개신교 집단에 속했다. 그보다 작은 남자에게 복종해야하고, 시간 안에 일을 마쳐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그를 숨 막히게 한다. 작은 사람 앞에서 꾸중을 들으면서 그는 “발작적인 분노에 잠시 목이 죄는 듯이 느끼고” 이내 “타는 듯한 갈증”을 경험한다(D 87). 그가 근무 중에 몰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 갈증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시간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할 일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초조해지면서 그는 폭력적 성향을 드러낸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형편에 처했을 때 폭발하듯이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일 것이다.

그는 온 사무실을 혼자서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언가를 저지르고 싶어, 뛰쳐나가 난폭한 행위를 마음껏 즐기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삶의 모든 냉대가 그를 분노케 했다. (D 92)

하지만 이야기 말미의 어린 아들처럼 그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는 외형적으로는 큰 사람이지만 더블린의 공간에서는 아들과 다를 바 없이 작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드워드 브랜다버(Edward Brandabur)도 패링턴이 “자신이 작은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내면적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105). 트레버 윌리엄스(Trevor L. Williams)는 더블린을 지배하는 두 이데올로기, 즉 알레인씨의 북아일랜드 억양이 시사하는 제국주의와 성모송[Hail Mary]의 반복이 가리키는 가톨릭주의가 작품의 시작과 끝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이것이 더블린 사람들을 폐소공포증으로 몰아넣는다고 본다(102). 거대한 두 세력이 더블린 사람들을 움짱달짝 못하게 하고 그들의 탈출구마저 막고 있는 것이다.

더블린의 이데올로기적인 폐소성은 닫힌 공간을 통해 물리적으로 제시된다. 그 곳은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지 않고 따뜻한 공기가 변함없이 순환하는 곳으로 『두 건달들』의 시작부분에 잘 예시되어 있다.

젯빛의 따스한 8월 저녁이 거리에 내려앉았고 여름의 기억이라 할 만한 온화한 따스한 공기가 거리를 순환하고 있었다. 일요일의 휴식을 위해서 가게들이 문을 닫은 거리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군중으로 들끓었다. 빛이 비추인 진주들처럼 가로등들이 높은 기둥 꼭대기로부터 밑에 있는 군중을 비추었고 이들은 모양과 색을 끊임없이 바꾸면서 따스한 젯빛의 저녁 공기 속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변함없는 속삭임의 소리를 울려 보냈다. (D 49)

거리를 순환하는 젯빛의 따스한 공기의 이미지는 이 이야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거리를 순환하게 될 주인공 레너헌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신선한 공기”의 의미인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헛되이 갈망하는 예블린과도 무관하지 않다. 나아가서는, 겐러허처럼 “더러운 정든 더블린”(dear dirty Dublin)을 탈출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마비의 중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더블린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다. 이 단락의 문장구조가 “젯빛의 따스한” 공기로 시작했다 다시 반복되며 끝나는 것도 폐쇄된 상태 및 순환을 강조하는 듯이 보인다.

“신선한 공기”로의 탈출은 『죽은 사람들』(“The Dead”)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만찬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게이브리엘은 연설문 내용을 다듬고 있다. 사람들은 춤추기에 싫증이 났고 몇 명씩 모여 위의 “끝없이 이어지는 변함없는 속삭임의 소리”처럼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밖은 얼마나 시원할까! 먼저 강가를 따라 그리고 나서 공원을 혼자 걷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을까! 눈은 나뭇가지에도 내려앉을 것이고 웰링턴 기념탑 꼭대기도 눈부시게 덮을 것이다. 저기가 만찬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 보다 얼마나 더 기분 좋을 것인가!” (D 192)

그가 외부로의 탈출을 갈망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아마 만찬에서 맡게 될 연설의 부담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그날 그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났던 집 관리인의 딸 릴리(Lily)의 말대꾸, 그를 “친영파”로 명명한 아이버스 양(Miss Ivors)의 공격, 그리고 고향으로 여름휴가를 가자던 아내 그레타(Gretta)의 간청과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가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멀린스 부인(Mrs Malins)의 끝없는 수다가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기분을 갖게 했을 것이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조금 전까지 게이브리엘이 “그의 마음 속에서 아이버스 양과의 불유쾌한 사건의 모든 기억을 지우려고 애쓰고 있었다”(D 190)는 점에 비추어보면 아직도 그가 이런 생각들을 모두 떨쳐내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 해볼 수 있다. 아내의 고향 골웨이(Galway)가 민족주의자들이 거의 신성시하던 곳이었다는 점에서 아내의 요청은 열렬한 민족주의자이며 먼저 그에게 골웨이 근처의 애란 섬으로의 여행을 권장했던 아이버스 양의 정치적 입장과 교묘하게 얽혀있다. 그렇다면 그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스티븐이 예술가로서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그물로부터 벗어나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잠시 무의식적으로 가족(아내), 민족(민족주의) 등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이버스양이 그가 보수적인 잡지에 글을 실은 것을 비난했을 때 “문학은 정치를 초월한다”고 말하고 싶었고(D 188),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가장 유명한 친영파 중 한 사람”인 웰링턴의 동상(Murphy 112)을 미학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지 모른다. 이 장면은 작품의 끝부분에 그가 창문으로 눈 덮인 세계를 바라보는 장면과 비교된다. 이 마지막 순간 그는 아내로부터 그녀의 첫사랑 마이클 퓨어리(Michael Furey)의

목숨을 건 순수한 사랑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랑이 일어났던 게이브리엘의 고향 서부로의 여행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부 여행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영국의 영웅이 된 웰링턴의 인생역정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여행이다. 그것은 『두 건달들』의 레너헌이 작품말미에 이야기 시작했던 곳 근처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다르고 예블린이 더 이상 여행을 꿈꾸어볼 수 없게 된 것과는 대조된다.

조이스의 모든 작품이 그렇듯이 『더블린 사람들』도 조이스의 전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첫 세 이야기들은 조이스가 스타니스로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의 어린시절”에 대한 것이라고 했으므로(Letters II 111) 다분히 조이스의 유년기를 반영한 작품들이다. 하지만 뒤의 다른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조이스의 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자주 제시된 것도 사실이다. 이 이야기들은 아마 “조이스가 더블린에 남았더라면 될 수도 있었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Halper 77). 예컨대 헬퍼는 함정과 폐소공포증의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이야기인 『하숙집』과 조이스의 삶을 비교하면서 도련을 조이스와 연결시키고 있고, 도널드 D. 토르치아나(Torchiana) 역시 이 작품의 인물이 겪는 역정이 “더블린에 [산다고 가정한다면] 조이스 자신에게 펼쳐졌을법한 운명”이라고 본다(118). 그렇다면 조이스는 더블린이 폐소공포증적 공간임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등장인물들에게 투사했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연한 만남』에서 소년은 “진짜 모험은 집/조국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밖/외국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D 21). 이와 관련하여 조이스는 1907년에 한 에세이에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아일랜드에 머무르지 않는다”(CW 171)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의 작품 속의 대부분의 더블린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한 것과 달리 아일랜드를 떠나 외국으로 망명한다. 그것이 가족, 교회, 정치라는 아일랜드 삶의 세 개의 “폐소공포증적인 그물”(Carroll 50)로부터 이 건 “아일랜드의 지적인 폐소공포증”을 피하기 위해서건(Fagnoli & Gillespie 119), 그는 그와 그의 능력과 창의성을 가두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난다.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우둔한 중산층”(D 111)을 피해 “가능한 한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자 했던”(D 107) 『가슴아픈 사건』(“A Painful Case”)의 더피(Mr James Duffy)처럼 “폐소공포증적인 도시”인 더블린(Tomedi 111)으로부터

더 자신을 멀리하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게이브리엘이 창가에서 바라본 눈이 더블린 전체를 덮듯이, 에블린의 먼지가 그녀의 집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캔들러가 마시는 더블린의 더러운 공기가 그의 집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듯이, 이 증상은 더블린 사람들 모두에게 전염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대)

인용문헌

- Brandabur, Edward. *A Scrupulous Meanness: A Study of Joyce's Early Work*. Urbana: U of Illinois P, 1971.
- Brown, Richard. *James Joy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 Carroll, Margaret Lasch. "Prodigal's Dreams: John McGahern's *That They May face the Rising Sun*." *Estudios Irlandeses* 3 (2008): 42-53.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Rev. Ed. Oxford: Oxford UP, 1982.
- Fargnoli, A. Nicholas & Gillespie, Michael P. *James Joyce A to Z: The Essential Reference to His Life and Writings*. Oxford: Oxford UP, 1995.
- Halper, Nathan. "The Boarding House." *James Joyce's Dubliners: Critical Essays*. Ed. Clive Hart. London: Faber and Faber, 1969. 72-84.
- Henke, Suzette A.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Desire*. New York: Routledge, 1990.
- Ingersoll, Earl G. *Engendered Trope in Joyce's Dubliners*.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P, 1996.
- Joyce, James. *Dubliners*. Eds.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Viking Press, 1969.
- _____. *Ulysses*. Eds. Hans Walter Gabler, Wolfhard Steppe, & Claus Melchior. New York: Random House, 1986.
- _____.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67.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s. II and III. E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Press, 1966.
- Leonard, Garry M. *Reading Dubliners Again: A Lacanian Perspective*. Syracuse: Syracuse UP, 1993.
- Mullin, Katherine. "Don't Cry for me, Argentina: 'Eveline' and the Seductions of Emigration Propaganda." *Semicolonial Joyce*. Ed. Derek Attridge and Marjorie Howes. Cambridge: Cambridge UP, 2000. 172-200.
- Murphy, Michael. "Political Memorials in the City of 'The Dead'." *Joyce and the*

- City: *The Significance of Place*. Ed. Michael Begnal. Syracuse: Syracuse UP, 2002. 110-22.
- Norris, Margot. "Masculinity Games in 'After the Race.'" *Masculinities in Joyce: Postcolonial Construction*. Ed. Christine van Boheemen-Sasf, and Colleen Lamos. Amsterdam: Rodopi, 2001. 13-31.
- Plock, Vike Martina. *Joyce, Medicine, and Modernity*. Gainesville: UP of Florida, 2010.
- Tomedi, John. *Dublin*.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2005.
- Torchiana, Donald T. *Backgrounds for Joyce's Dubliners*. Boston: Allen & Unwin, 1986.
- Walzl, Florence L. "Dubliners." Ed. Zack Bowen & James F. Carens. *A Companion to Joyce Studies*.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84. 158-228.
- Williams, Trevor L. "No Cheer for 'the Gratefully Oppressed': Ideology in Joyce's *Dubliners*." *ReJoycing: New Readings of Dubliners*. Eds. Rosa M. Bollettieri Bosinelli and Harold F. Mosher Jr. Lexington: UP of Kentucky, 1998. 87-109.

AbstractEntrapment and Claustrophobia in *Dubliners*

Taeun Min

Joyce's fascination with medicine, health, and discourses on the human body is well known. He absorbed clinical attitudes, which he carried into his fiction. For example, he concludes that the malady of Ireland is hemiplegia. This essay examines *Dubliners*' claustrophobia and enclosedness as well as the air of claustrophobia of the city in *Dubliners*.

In "The Boarding House," Doran finds himself helplessly trapped into marriage. Understandably, he has the fear of not being able to break out. In "After the Race," Jimmy Doyle is lured into Farley's yacht, a remote and secluded venue for swindlers from which he cannot get away. Betrayed by bogus friendship, he has to lose his money in the game. Eveline, who is already trapped in the dusty house and in a life of drudgery, is offered a chance to escape in pursuit of fresh air and a new life. However, she finds herself as a helpless animal fearful of having no escape. In "Counterparts," the twin ideological voices, imperialism and Catholicism, are so influential that individual voice is scarcely heard; hence the story's claustrophobia. Not surprisingly, both Farrington in his office and his son at home reveal the fear of being closed in. Chandler in "A Little Cloud," feels confined to his office of a deadening routine and his home of dull domesticity; these places are like suffocating coffins.

This atmosphere of claustrophobia pervades the city of Dublin. The stories in *Dubliners* are either about Joyce himself or about the person he imagines himself to have become if he had stayed in Dublin. It is most probable that Joyce himself felt confined. Thus, he wanted to escape what he regarded as the intellectual claustrophobia of Ireland or three stifling claustrophobic nets of Irish life of family,

church, and politics.

■ Key words : Joyce, *Dubliners*, Claustrophobia, Dublin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폐소공포증, 더블린)

논문접수: 2013년 11월 19일

논문심사: 2013년 11월 19일

게재확정: 2013년 11월 29일